한마음선원 대구지원 생활수행 원력 실천 30년

8월 25일 개원 30주년 기념 법회 봉행
사부대중 50여명 참석…유튜브 생중계
신도들 관법 정진 등 마음 충전소 역할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에도 역점


한마음선원 대구지원은 8월 25일 30주년 기념법회를 개최했다. 방역지침 준수하에 법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 진행됐다.

대구=노덕현 기자 · 손문철 대구지사장

"생활의 모든 것을 자기 뿌리에다 일임하고 놓아라."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생활수행도량으로 거듭난 한마음선원 대구지원이 개원 30주년을 맞았다.

한마음선원 대구지원(지원장 혜공)은 8월 25일 오전 11시 대구지원 법당에서 개원 3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과 주지 혜솔 스님, 대구지원장 혜공 스님을 비롯한 선원 스님들과 하강수 신도회장 등 신도회 임원진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법회는 대구지역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 지침을 준수해 외빈 초청없이 최소 인원만 법당에 참석시켜 진행했으며, 대신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법회는 △삼귀의 △승단 및 역대회장단 헌화 △청법 및 입정 △대행 선사 영상 법문 △대구지원 개원 30주년 발자취 영상 상영 △이사장 혜수 스님 격려사 △주지 혜솔 스님 인사말 △선법합창단 음성공양 △하강수 신도회장 인사말 △안숙경 보살 도량 감사편지 낭독 △지원장 혜공 스님 인사말 △사홍서원 및 산회가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이사장 혜수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대구지원은 신도님 아파트서 신도들이 공부하면서 시작됐다. 개원 후에도 안양 본원으로 버스 타고 오가며 정진을 다짐한 신심과 열기가 지금도 느껴진다"며 "대행 큰스님께서 30년을 전후해 많은 지원을 개원하고 터전을 닦아주셨다. 지원마다 대중들의 아픔도 함께 보듬어 주셨다.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정진한 신도들이 지금은 지역서 자리잡고 이렇게 큰 몫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함께 정진해가자"고 당부했다.

주지 혜솔 스님도 "우리가 우리 의지대로만 할 수 없는 경계가 다가올 때 이런 경계를 고스란히 놓는 것은 관하는 힘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한마음 주인공의 마음으로 30년을 딛고 30년을 이어서, 미래의 시간을 만들어 가자"고 축하했다. 스님은 이어 "내 안을 들여다보고 내 안에서 어떤 생각이 올라오는지 또 내가 중생심을 발동시키는지 그리고 한 마음의 에너지로 생각을 굴리는지를 살펴볼 일"이라며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도의 마음으로 관하고 우리 존재가 연결되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내 생각 하나 하나가 지역, 사회, 지구, 우주에 미치는 영향을 느끼고 항상 정진해가자"고 격려했다.

하강수 대구지원 신도회장도 "우선 묘공당 대행 큰스님과 혜원 스님 등 불철주야로 쉼없는 가르침을 주신 큰스님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한다. 오늘날 대구지원이 있기까지 묵묵히 함께 정진하고 동참해준 신도들에게도 감사드린다"며 "1991년 8월 25일 대구 실내체육관서 대행 큰스님이 법을 설하신 것은 물질세계를 여의고 정신세계의 장을 연 것이었다. 우리 모두는 그 가르침을 놓치지 말고 끊임없이 정진해가자"고 말했다.

이어 안숙경 보살은 도량에 대한 감사편지 낭독을 통해 "아직 부족한 저에게 대구지원 도량은 마음 충전소"라며 "도량에 들어서면 어느새 들뜨거나 슬픈 마음이 가라앉고 에너지가 충전돼 일상서 힘차게 활동할 수 있어 감사한다. 저 역시 충만한 한 사람이자 또 다른 도량이 되어 다른 이들에게 밝은 에너지를 전하는 이가 되고 싶다"고 바람을 전했다.

이날 대구지원 대중들은 기념법회 후 지원장 혜공 스님의 헌향과 함께 간단한 기념촬영으로 행사를 마무리 했다.

마지막으로 지원장 혜공 스님은 "대행 큰스님 법문을 들으며 스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다. 비가 오는 와중에도 함께 동참해 대구지원 30주년을 축하해준 신도들과 온라인으로 실시간 동참한 신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큰스님께서 일러주신 말씀 잘 새겨서 열심히 정진하도록 하겠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한편 한마음선원 대구지원은 어린이 교육을 위한 자모회, 자부회와 교육자 모임 아리회 활성화 및 안양본원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진행 중이다.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30년사

1990년
뉴욕지원 신도의 대구 정착서
대행선사의 정진 당부

1990년 11월
도연화 보살 집에서
비디오법회로 최초 모임 탄생

1991년 8월 25일
대구지원 개원 및 대행 스님 대법회

1992년
대구지원 확장, 한마음 대구소식지 발간
혼성합창단 발족

1993년
대구지원 불사 설계도 착수 및 대지구입

1995년 3월
호국영령 청도대법회 및 대구지원 법당 기공식,
수재의연금 모금

1998년 12월 대구지원 불사 착공

1999년 12월 대웅전 상량식

2000년 4월 이운법회

2002년 5월 준공법회

2003년 2월
물 · 불 · 바람 대화합제,
대구지하철 희생자 연합 천도재

2003년 2월 3년 특별정진 입재

2013년 학부모 역량강화 교육

2016년 청소년 마음등불사업 전개

2018년 한마음음악회 개최

2020년
코로나19 성금 기부, EM지구살리기 운동 전개


8월 26일 열린 개막식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첫 국제불교영화제 문을 열다

1회 세계일화불교영화제 개막
서울 대한극장 8월 30일까지
개막작, 부탄 영화 'THE CUP'

제1회 세계일화국제불교영화제가 8월 26일 서울 충무로 대한극장에서 개막식을 열고 일정을 시작했다.

개막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날마다 좋은 날 주윤식 이사장, 동국대 윤성이 총장, 국제불교영화제 집행위원장 차승재 교수 등 사부대중 150여 명(대한극장 7관 최대 수용인원 320명의 50% 이하)이 참석했다. 불교영화의 다양한 콘텐츠로 불교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된 이번 영화제는 8월 30일까지 열리며, 15개국에서 62개 작품이 상영된다.

개막작으로 'THE CUP(켄체 노부, 부탄)'이 상영됐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전영우 교수, 제30대 문화재위원장 선출

문화재청 온라인투표 결과
'사찰 숲 전문가'로 알려져

산림학자이자 사찰 숲 전문가인 전영우 국민대 명예교수<사진>가 제30대 문화재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8월 20일 제30대 문화재위원회를 이끌어갈 문화재위원회 위원장단(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선출했고, 위원장으로는 전영우 국민대학교 명예교수가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위원장단은 위원들 간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는데,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 전체회의(대면)를 2차례 계획하였다가 코로나19 상황과 정부의 방역 방침을 고려하여 연기한 바 있다. 문화재청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활용해 8월 17일과 18일 양일간 위원장단 선출을 위한 온라인 투표로 이번 위원장단을 선출했다.

대중들에게는 '소나무 박사'로 잘 알려진 전 위원장은 〈비우고 채우는 즐거움, 절집 숲〉 〈한국의 사찰 숲〉 〈송광사 사찰 숲〉 등 사찰 숲 해설서를 저술할 정도로 사찰 숲에 대한 조예와 애정이 남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연유산 연구에 평생을 매진한 공로로 홍조근정훈장(2004)과 은관문화훈장(2019)을 수여받은 바 있으며,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저서(2006), 문화관광부 우수학술저서 선정(1999, 2011) 등 다수의 저명한 학술연구와 저술 활동을 해왔다. 또한, 자연유산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30여 년간 (사)숲과문화연구회 대표, (사)생명의숲 이사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1962년에 발족한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청의 자문기구(비상근)로서 문화재 관련 주요 안건을 조사 ·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신성민 기자

보조사상硏, 제137차 정기월례학술대회

9월 10일 비대면 방식으로

보조사상연구원(원장 김방룡)은 9월 10일 오후 2시 ZOOM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학술대회를 연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이명호 중앙승가대 강사의 '전환의 시기, 사찰 새롭게 보기- 사찰의 역할을 중심으로'와 김치온 진각대 교수의 '규기의 이행이불성설(理行二佛性說)과 소분일체(小分一切)에 대한 고찰'이 각각 발표된다.

논평자로는 이상호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교수, 신희정 한국교원대 강사, 김준우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 등이 참여한다. 신성민 기자

